

동정

- 회원사
- 관련기관

대우통신

인터넷 서비스사업참여

대우통신(대표이사 유기범)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위해 시스템 사업본부내에 인터넷추진팀을 구성하고 대우그룹 전 계열사뿐만 아니라 일반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 '91년도부터 인터넷에 가입하여 자체 연구망 및 사내 종합 정보망을 구축, 인터넷을 활용해온 대우통신은 이번 인터넷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 1단계로 대우그룹 R&D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대우,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본격적인 인터넷 서비스에 들어갔다.

인터넷 메인 운영센타를 대우통신 종합연구소내에 두고 있으며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센타내 ATM-LAN망 및 1.544Mbps급 T1 백본(backbone)을 구축한 상태이다. 현재 그룹 및 각계열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웹서버를 구축하고 있으며 뉴스 서비스, 화일전송 서비스, E-Mail 서비스 등의 기본 서비스는 물론 국내외

도서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LIBS서비스, 사원들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자체 BBS(Bulletine Board System)서비스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대우통신은 올 상반기까지 T1급 전국망을 확보하여 대우그룹 전사업장, 협력사, 해외연구소 및 전세계 지점망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용 DB서비스, 인터넷을 이용한 부가통신서비스 등의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계열사들의 웹 서버를 완벽하게 구축해주는 SI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대우통신은 이러한 그룹망 추진을 통해 인터넷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쌓은 다음 3단계로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오는 '98년초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2000년의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 시장에서 20%의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우통신은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인터넷 사용료로 일반 가입자들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우통신은 올해 1년동안 전세계적으로 개최될 "인터넷 월드 엑스포 '96"에도 그룹차원에서 참여하여 21세기를 향한 대우통신과 대우그룹의 비전 및 기술력을 제시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데이콤

데이콤 사장,

케냐 MTA사 사장단 접견

데이콤 손 익수사장은 지난 3월

4일 아프리카 케냐의 통신업체인 MTA(Mobile Telecommunications Africa)사 하베이 허(Harvey Herr)의 사장의 임원 1명의 내방을 받고 글로벌스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통신망 설계 및 구축기술 등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국제전화 등 기타 통신분야 참여방안과 이에 관한 양사의 기술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데이콤 통신센타 등 시설견학을 가졌다.

MTA사는 데이콤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스타사업 관련 기술의 확보를 통해 케냐, 수단, 이디오피아 등 동부 아프리카 8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스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데이콤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천리안 통해 기차표 예약 서비스

데이콤은 철도청과 계약을 맺고 지난달 11일부터 천리안매직콜을 통해 기차표 예약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예약서비스는 그동안 요금, 시각, 잔여좌석 등에 대해 조회만 가능했던것을 예매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철도청 전산시스템의 DB용량관계로 철도회원(회비는 2만원)에게만 제공되며 올 하반기부터 모든 천리안매직콜 이용자에게 확대된다.

전화통화 조회 서비스 제공

데이콤은 자사의 국제전화나 시외전화를 이용한 고객이 통화내역을 온라인으로 조회해 볼 수 있는 "전화통화 상세이용내역 조회서비스"를 지난달 6일부터 제공했다.

교보정보통신

한국전산,

교보정보통신으로 새출발

한국전산이 3월 1일자로 교보정보통신(대표이사 이장규)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번 상호 변경은 지난해 8월 교보생명이 한국전산을 인수, 그동안 교보 관계사로서의 이미지 통합을 위해 상호변경을 검토해온 끝에 지난 2월 27일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교보정보통신으로 최종 결정했다.

교보정보통신은 상호변경과 함께 자본금 현재 25억원에서 50억원 규모로 늘려 향후 정부나 공공기관의 대형 SI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정보통신은 또한 상호변경과 함께 향후 멀티미디어 응용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굴지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함은 물론 멀티미디어 데스크탑 ATM 및 통신장비 판매를 시작으로 통신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비전 2000' 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교보정보통신은 오는 2000년 SI, 멀티미디어, 컴퓨팅 서비스 등 3개 사업부문에서 총매출액 1천2백억, 순이익 1백억원을 실현하는 대형 종합 정보서비스기업으로 발전하여 국내 금융 SI 분야의 정상업체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마련해놓고 있다.

삼성데이터시스템

유니텔 이달 4월부터 유료화

삼성데이터시스템의 PC통신서비스인 유니텔을 이달부터 월 1만1천원의 정액제로 유료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9일 유니텔측은 "현재 무료

로 제공중인 유니텔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유료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니텔의 요금 구조는 일반 가입자에게는 월 1만1천원의 정액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현재 시범 서비스 가입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 그룹계열사 사용자들에 대한 요금수준은 조만간 그룹측과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서비스의 유료화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고 *국내에 인터넷 마인드를 확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내년초로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유니텔 서비스의 치명적인 결점으로 지적됐던 루핑 현상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시스템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료화 시기를 앞당길 경우,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유니텔측은 "루핑 현상은 어느 서비스에서나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상용화 이전에 이문제를 개선한 유니원 1.12버전을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통신

무선데이터 통신 시범서비스

한국통신(대표이사 이준)이 서울지역에서 무선데이터통신 시범서비스에 본격 나섰다.

한국통신은 지난달 7일 무선데이터통신 시범서비스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를 갖고 단말기 및 통신 소프트웨어를 각 사에 배정, 이날부터 서울지역 3백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를 위해 서울지역 30개 전화국에 기지국 설치를 완료한데 이어 3월말까지로 허가받은 시험용 주파수 사용기한을 연장해 시험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무선데이터 시범서비스에는 진보엔지니어링, BC카드, 한국PC통신, 두산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등 14개 기업체와 서울시 지방경찰청이 참여해 무선 PC통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판매시점관리(POS), 데이터베이스(DB) 검색 및 조회등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적용하게 된다.

멀티 서비스 국제포럼 가입

한국통신이 멀티미디어서비스 국제포럼(MSAF)에 참여, 국제적인 통신사업자들간의 멀티미디어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한다.

지난달 5일 한국통신은 전세계 30여개 통신사업자와 기술개발업체들이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표준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수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결성한 MSAF가 지난 3월 5일자로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MSAF는 한국통신을 비롯해 AT&T(미), BT(영), FT(불), DT(독), NTT(일), 텔스트라(호주), ST(싱가포르)등 세계 유수의 통신사업자들과 노벨. 로터스. 시스코. 벨코어. 마이크로소프트등 기술개발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관련 전문포럼이다.

특히 ATM포럼, DAVIC등 기존 멀티미디어 표준화 단체들이 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MSAF는 현재 각국의 통신사업자들이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협대역 ISDN, 프레임릴레이 등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

음성사서함 서비스 개시

한국이동통신(대표이사 서정욱)은 지난달 6일 이동전화의 전원이 꺼져있고 서비스 지역밖에 있을 때나 통화중 또는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겨 이동전화가입자가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한 “이동전화 음성사서함 서비스(VMS)”를 3월11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동전화 VMS에 가입하면 이동전화를 걸거나 받을때마다 통보음을 통해 음성사서함의 메시지 저장 여부를 알 수 있다. 또 이 서비스에는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메시지를 음성사서함에 저장, 알려주는 가입자 메시지 기능도 지니고 있다.

한국전산원

“전산망 보안 관리지침” 마련

최근들어 빈발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관련 범죄 등 보안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난달 7일 한국전산원(원장 이철수)은 국내 각 공공기관들이 전산망 위협요소로부터 전산자원 보호를 위해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산망보안관리를 위한 위험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마련한 보안위험관리 지침을 국가기간전산망과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보안위험관리 지침은 각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전산자원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고 위협이 주는 잠재적 영향을 조사해

효과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론이다.

이 지침은 위험관리 요소를 자산, 위협, 취약성, 영향, 위험 등 5개로 분류, 각기관이나 조직의 위험관리 요소의 취약성 정도를 평가, 결과에 따라 비용과 효과를 고려한 총체적 대응책을 세울수 있도록 정보기술(IT) 보안계획 수립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및 보안통제기능과 절차를 구현함으로써 전산자원의 보안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험관리 방법론은 위험관리의 모델별로 1백여개에 이르고 있다.

한진그룹

미국 D&L사와 TRS분야 기술 제휴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진그룹은 최근 해운센터 빌딩에서 미국내 디지털 TRS 운영회사인 D&L사와 기술 도입 및 지분참여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이날 TRS망 구축, 부가서비스 및 관련기술 교육 등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기술협력하기로 했으며 한진그룹은 이에 따라 전국 TRS 사업을 위한 운영중심의 컨소시엄의 더욱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D&L사는 지난 63년부터 미국 전역에 TRS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차세대 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 음성서비스는 물론 차량간, 차량과 본사간 무선데이터 송수신 및 차량 위치추적 등 다양한 데이터 응용 전문기술을 보유한 망

운영사업자다.

한국PC통신

인터넷 PPP서비스 유료화

한국 PC통신(대표이사 김근수)은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전용망인 KOLNET를 통해 무료로 제공해온 인터넷 PPP(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유료화 했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이용료는 하이텔 가입자의 경우 월 3만원, 비가입자의 경우 월 3만5천원이다.

PPP서비스는 하이텔을 거쳐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존의 계정서비스(월 2만5천원)나 메뉴서비스(분당 20~30원)와 달리 별도의 접속번호(02 764 0001)가 부여된 전용망을 통해 곧바로 인터넷에 접속시켜주는 서비스다.

이와 관련 하이텔의 인터넷의 사업팀은 “6개월간의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시스템이 안정화돼 유료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현재는 수도권 지역에만 PPP 전용망이 구축돼 있으나 내달 5월초까지 지방에도 전용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G정보통신

CDMA 상용화 기념식

LG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지난달 12일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분무그룹회장 등 LG그룹 관계자와 한국통신, 한국이동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 7백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세계 최고 수준의 CDMA 이동전화시스

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장호 LG정보통신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LG정보통신이 세계 처음으로 CDMA 이동전화시스템을 광대한 지역에서 상용화하는 기술개발 업적을 실현하게 돼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며, “앞으로도 정보통신전문으로써 국내정보통신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회장은 축사를 통해 “LG정보통신이 세계수준의 CDMA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것은 정보통신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확고한 사명감과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라며 “앞으로 그룹차원에서의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이동통신서정옥사장과 전자통신연구소 양승택소장이 CDMA이동전화시스템 개발과 상용화에 기여한 공로로 LG그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LG정보통신의 CDMA기술개발 연구원들에게는 총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한편 LG정보통신은 한국이동통신에 CDMA 장비를 공급, 지난달 1월에 인천, 부천지역을 시작으로 세계 최초로 광대한 지역에서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서비스를 가능토록 했다.

정보통신부

디지털 방송기술 개발 본격화

최근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방식의 지상파방송기술이 국내에서도 본격 개발된다.

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5년간 총 2백80여억원을 투입, 정부·연구소·방송사·

제조업계 공동으로 지상파 방송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은 방송 품질을 개선하고 갈수록 부족해지는 지상파 방송 주파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1차연도인 올해 약 19억원의 자금을 투입,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기본방식 구조를 설계하고 시스템 레벨의 모의실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97년과 '98년에는 각각 51억원과 8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주파수 방식세부설계 기술 *AM, FM 방송 시제품 설계 및 제작 *TV방송 기본방식 설계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어 '99년에는 80억원의 재원을 들여 *AM, FM방송 야외 운용시험과 *TV방송 시제품 설계제작을 거쳐 2000년말까지 추가로 5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지상파 방송방식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같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관련 기술의 조기개발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연구분담 체계를 도입, 정부는 국내, 국제 표준화 및 방송방식만을 결정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방식과 시제품 개발, 운용시험 등의 기반기술 개발을 담당케 할 방침이다.

PC통신망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차단

정부는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중 PC통신을 악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기 위한 대책을 수립, 지난달 15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정보통신부는 4.11. 총선을 앞두고 “PC통신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

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PC통신업체들로 불법 선거방지 대책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와 각 PC통신업체에 불법 선거 신고센터를 개설, 24시간 신고를 접수해 선관위로 이첩토록 했다.

또한 선거 기간중 윤리위원회와 각 PC통신업체에 모니터링 요원을 대폭 증원해 불법 선거운동 내용이 게재될 경우, 선관위와 협의를 통해 엄중한 경고조치와 함께 즉시 삭제할 계획이다.

서울이동통신

미국 PCS사업 “노크”

서울이동통신(대표이사 이봉훈)이 미국내 개인휴대통신(PCS)사업에 참여한다.

서울이동통신은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실시하고 있는 PCS 주파수 C블록경매에 참여하고 있는 미넥스트웨이브 텔레콤사에 5백만달러를 투자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이동통신은 통신시장 개방 및 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내 PCS사업 진출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이번 미국 시장진출로 현재 자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인 발신전용휴대전화(CT-2) 서비스의 망 진화계획 및 CDMA에 관한 기술을 습득, 차세대 이동통신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